



[뉴스] (주)두산 대주주 두산중공업에 퓨얼셀 지분 증여 02



Economy

코스피	2625.91 (+24.37)	코스닥	874.53 (+9.41)
금리 (미국 3년)	0.981 (+0.010)	환율 (원/달러)	1104.60 (-4.30) (26일)



구광모 LG 대표 신년사 영상 모습. /LG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

젊어지는 LG, 40대 대거 발탁

구광모 체제 4년 'LG그룹 인사'

LG그룹이 구광모 체제 4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구광모 대표만의 스타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구분준 고문 중심 계열 분리도 마무리하면서 경영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LG는 26일 2021년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올해에도 CEO 대부분을 유임하거나 승진 조치하며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인재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안정속 혁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임원 인사에서는 구광모 대표 '실용주의'를 대폭 반영해 과감한 승진을 단행했다. 신입 상무가 124명,

이중 45세 이상이 24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규모를 확대했다.

LG그룹은 고객에 대한 집요한 고찰을 바탕으로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가진 젊고 추진력있는 인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준비 기반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영역에서 성과를 낸 인재를 중심으로, 융복합 기술 개발 등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R&D 및 엔지니어 분야 젊은 인재에 기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LG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LG신설법인(가칭)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신설법인은 구분준 고문을 대표로 LG상사 및 판토스 등 계열사와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와 MMA를 품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

AI기업에도 '닷컴버블' 징조 80% 거른후 '제2아마존' 출현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 편향성·오류 등 AI에 거품 많아 3~4년 안에 '옥석가리기' 진행

인공지능(AI) 시장이 올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AI에 거품이 많아 3~4년 안에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면서 70~80%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AI 성장의 이면에 AI 편향성, 오류 및 안전성, 악용, 개인 정보 보호 문제, 킬러 로봇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자율주행차도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등 윤리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과 웨비나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강연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L6·L7면>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IT컨설팅 그룹인 가트너 그룹이 매년 내놓는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테헤란로 기업의 70~80%가 망한 것처럼, 인공지능도 3~4년 안에 AI 기업 중 시장 검증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문을 닫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은 '제2의 아마존', 네이버와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이내에 인공지능 기업이 경제적 효용을 보여야 하는데, 방법은 비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는 것,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내 AI 시장에서 뷰노·루닛은 영상 진단 분야에서, 솔트룩스와 KT는 AI 상담·고객센터 분야

에서, KT와 수아랩은 스마트공장에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웨이모는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고성능 라이다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가격이 비싸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웨이모는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없어 택시 서비스만 제공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반면,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써 가격이 싸지만 제품이 레벨2 수준으로 운전자가 참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자율주행차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해 판단하다 보니 사립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게 나오고 공립학교는 나쁘게 나오는 편향성과 흑인, 여성에 대한 편견을 보여줬고, AI로봇이 오류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며 "AI 스피커 회사에서 개인 목소리가 유출되거나 AI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도 있었다"며 AI의 역작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인류의 미션은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코로나19 3차 대유행' 현실로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 넘어

전일보다 201명 늘어난 583명 서울서 208명, 경기 177명 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번지며 일일 확진자 수가 8개월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일보다 201명 늘어난 5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은 것은 신천지에수교를 중심으로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서울 208명, 경기 177명 등에서 402명이 발생하며 수도권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어섰다. 서울 역시 2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우려를 키웠다.

감염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층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30대 코로나19 확진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고 인공호흡기

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어 다음 주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까지는 확진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반전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반장은 "수도권 2.5단계 격상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계속 나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어서 오늘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고, 또 2단계 격상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전에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601.54)보다 24.37포인트(0.94%) 상승한 2625.91에 마감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5.12)보다 9.41포인트(1.09%) 오른 874.5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08.9원)보다 4.3원 내린 1104.6원에 마감했다. /뉴스IS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 합의식 돌연취소

매각관련 현장조정위, 잠정적 연기 이른바 '송현동 땅' 매각과 관련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최종 합의식이 행사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익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잠정 연기됐다. 권익위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현장조정회의'가 관계 기관 간 추가적

인 협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그룹 유류자산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3만 6642㎡) 및 건물(605㎡)의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대한항공이 경영난을 겪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유류자산을 팔고자 한 것

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며 공영화 계획을 공표해 이 같은 매각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차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난 5개월간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왔다. 현재 맞교환 대상 부지로는 마포구 서부순천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